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이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th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s Basic Nursing Skills

박진아, 홍지연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Jin-Ah Park(jinns@howon.ac.kr), Ji-Yeon Hong(jyhong@howon.ac.kr)

요약

기본간호학 교과목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하기 전에 간호실무를 경험하는 교과목으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간호술기는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간호술기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서 기본간호학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18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질문지법으로 자료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입학동기, 전공만족도, 실습 흥미도에 따라 기본간호수행능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자율실습 도움정도 이었으며, 이들 변인은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총 변량의 23.8%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수법의 활용과 자율실습을 활성화 하기 위한 교과목 운영 방법을 제언한다.

■ 중심어 : | 기본간호술기 | 능력 | 간호대학생 |

Abstract

Basic nursing, the course for the nursing students to experience nursing practice before going on to the clinical practice, and is crucial for solving health-related problems of patients.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analyze the impact factors associated with nursing students' basic nursing skill competency. In this study, total 181 subjects participants, and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by self-written questionnaire metho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2.0 program.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 difference in basic nursing competency was found according to admission motive, major satisfaction, and interest in practi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the degree of self-training aid influenced performance of basic nursing skills by nursing students,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23.8% of the total variance of basic nursing skills performance. These findings suggest, in order to improve performance of basic nurs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use various teaching methods that help improve critical thinking and relevant curriculum that promote self-practice.

■ keyword : | Basic Nursing Skills | Competency | Nursing Student |

* 본 연구는 2015년도 호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5년 11월 02일

수정일자 : 2015년 11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07일

교신저자 : 홍지연, e-mail : jyhong@howon.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 사회는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분야의 전문화 및 건강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의료인에게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진반에 걸친 권리의식의 증가에 따라 최상의 의료에 대한 대상자의 요구증가는 임상실습을 통해 임상실무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간호학생의 실습교육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1].

간호교육의 목적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통합적 교육을 통해 질적인 간호수행능력을 가진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들이 이론적 지식을 실제 임상현장에 적용하고 스스로 학습하여 경험을 얻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2]. 간호학과와 실습교육은 교내실습 교과목과 임상실습 교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기본간호학 교과목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하기 전에 유일하게 간호실무를 경험하는 교과목으로 간호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교육과 이에 대한 구체적 간호술을 훈련하는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1].

기본간호학 교과목에서 학습하는 기본간호술기는 간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능력 중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실무능력으로서 간호사들이 어떠한 간호현장에서든지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기술이다[3].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에게 실습교육을 통하여 이론과 실재를 통합하여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봄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대상자에게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통합과 조정의 경험이 주어져야 한다[4].

현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여건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기본간호술기를 직접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5], 졸업 후에는 다양한 간호실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복잡한 간호상황에 적응하여 숙련된 간호행위를 해야 하며[6], 이에 대한 부적응은 직무만족도와 간호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이직을 초래하기도 한다[7]. 그러므로 교내실습 교과목에서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으로서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의 임상수행능력도 향상될 수 있어 업무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대학생의 실습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임상실습 교과목과 관련하여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에 관련된 것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성별, 자기주도적 학습[8],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9], 문제해결 자신감[10], 환자와의 갈등, 실습 교육 환경[11] 등의 변수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교내실습 교과목과 관련된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학습만족도,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성[1], 실습태도, 자기효능감, 개방실습실 이용횟수[3] 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의 교육목적 중 하나가 실제 임상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이 기본간호수행능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지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자기주도적 학습,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이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과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간호술기 수행 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이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소재의 4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참여 여부는 자발적이며 연구도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여지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경우만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98명의 응답자 중에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181명 이었다.

연구 표본 크기는 G*Power 3.1 program[12]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1-β)=.95로 하여 174명이 산출되었다.

3. 연구도구

3.1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은 이원희 등[13]이 개발하고 최미숙[14]이 수정·보완 후 송미령 등[1]이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 수행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간호과정, 간호기술, 교육/협력관계, 대인관계/의사소통, 전문직 발전의 5개 영역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송미령 등[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7$,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1$ 이었다.

3.2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은 Guglielmino[15]의 자기주도적 학습 준비도 검사(SDLRS)를 기초로 유귀옥[16]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2문항 5점 척도로 부정적 문항인 3개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이 도구는 6개의 하위영역인 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자기 이해,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유귀옥[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3$,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9$ 이었다.

3.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내·외부 문제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과 상황 재구성 능력,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적응 능력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이다 [17][18].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측정을 위해 Klohnen[18]의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박현진 [19]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신감, 대인관계 효능감, 낙관적 태도, 감정통제의 4개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긍정적 진술문 4문항과 부정적 진술문 25문항의 도구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현진[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1$ 이었다.

3.4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권인수 등[20]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적통합 6문항, 창의성 4문항, 도전성 6문항, 개방성 3문항, 신중성 4문항, 객관성 4문항, 진실 추구 3문항, 탐구성 5문항의 5점 척도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최저 35점에서 최고 1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892$ 였고, 본 연구의 Cronbach $\alpha=.89$ 이었다.

3.5 자율실습 도움정도

자율실습 도움정도는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에게 자율실습이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10점 만점에 1점 간격으로 점수화 하도록 하였다.

4. 자료수집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소재한 간호학과 4곳에서 기본간호학 실습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하였다. 자료수집 전 본 연구자들이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참여 동의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 후 직접 배부 및 원거리는 전화로 설명 후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또한 응답을 철회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없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확인하였다.
- 5) 대상자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81.8%가 여성이며 학년은 2학년이 176명(97.2%)으로 나타났다. 입학동기는 취업률 때문이 37.6%로 가장 많았고 적성(28.2%), 주위의 권유(25.4%)의 순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48.6%로 보통 48.6%와 같은 분포를 보였다. 실습 흥미도는 63.0%가 흥미가 있다고 답하였고 33.1%가 보통이라고 답하여 전체 응답 학생의 96.1%가 기본간호학 실습에 보통 이상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실습 도움정도는 10점 만점 중 도움이 되는 정도를 점수로 표시하게 한 결과 평균 7.63 ± 1.83 으로 나타났다 [표 1].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81)	
특성	분류	n(%)	M±SD
성별	남	33(18.2)	
	여	148(81.8)	
학년	1학년	0(0.0)	
	2학년	176(97.2)	
	3학년	5(2.8)	
	4학년	0(0.0)	
입학동기	적성	51(28.2)	
	취업률	68(37.6)	
	주위의 권유	46(25.4)	
	기타	16(8.8)	
전공 만족도	만족	88(48.6)	
	보통	88(48.6)	
동료 관계	불만족	5(2.8)	
	일반	128(70.7)	
	보통	50(27.6)	
실습 흥미도	원만치 않음	3(1.7)	
	있음	114(63.0)	
	보통	60(33.1)	
자율실습 도움정도	없음	7(3.9)	
			7.63 ±1.83

2. 대상자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대상자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은 평균 3.45 ± 0.48 점,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41 ± 0.40 점, 자아

단력성은 평균 3.66±0.04점, 자기주도적 학습은 3.40±0.43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N=181)

범주	M±SD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3.45±0.48
비판적 사고성향	3.41±0.40
자아탄력성	3.66±0.04
자기주도적 학습	3.40±0.43

3.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과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과의 관계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과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r=0.444, p<.001), 자기주도적 학습(r=0.352, p<.001), 자율실습 도움정도(r=0.279,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r=0.444, p<.001), 자아탄력성(r=0.366, p<.001), 자기주도적 학습(r=0.60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아탄력성은 비판적 사고성향(r=0.366, p<.001), 자기주도적 학습(r=0.403,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은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r=0.352, p<.001), 비판적 사고성향(r=0.609, p<.001), 자아탄력성(r=0.40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3].

표 3.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의 상관관계 (N=181)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탄력성	자기주도적 학습	자율실습 도움정도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r(ρ) 1				
비판적 사고성향	r(ρ) .444 (.001)	1			
자아탄력성	r(ρ) .116 (.119)	.366 (.001)	1		
자기주도적 학습	r(ρ) .352 (.001)	.609 (.001)	.403 (.001)	1	
자율실습 도움정도	r(ρ) .279 (.001)	.202 (.007)	.254 (.001)	.117 (.118)	1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의 차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은 입학동기(p=0.005), 전공 만족도(p=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실습 흥미도에 따라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의 차이가 있었는데 흥미가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보다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이 더 높았다(p=0.002)[표 4].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의 차이 (N=181)

특성	분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M±SD	t or F	p	Sch-effe
성별	남 ^a	3.58±0.07	1.714	.088	
	여 ^b	2.62±0.25			
학년	2학년 ^a	3.44±0.48	-1.302	.195	
	3학년 ^b	3.72±0.54			
입학동기	적성 ^a	3.63±0.42	4.467	.005	
	취업률 ^b	3.32±0.45			
	주위의 권유 ^c	3.40±0.55			
	기타 ^d	3.45±0.48			
전공 만족도	만족 ^a	3.53±0.52	3.187	.044	
	보통 ^b	3.38±0.42			
	불만족 ^c	3.15±0.45			
동료 관계	원만 ^a	3.47±0.47	0.630	.534	
	보통 ^b	3.38±0.53			
	원만치 않음 ^c	3.57±0.37			
실습 흥미도	있음 ^a	3.53±0.49	6.416	.002	a)c
	보통 ^b	3.33±0.43			
	없음 ^c	3.05±0.39			

5.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기본간호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자율실습 도움정도,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집단 간 차이를 보인 입학동기, 전공 만족도, 실습 흥미도를 회귀분석 식에 투입한 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자아탄력성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은 성별, 학년, 동료관계는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정규성 검정(Shapiro-Wilk test)에서 .077로 나타나 0.05보다 크므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이 1.615으로 자기 상관성이 없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가 .959로 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042로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 < .001$), 모형은 적합하였다($R^2 = .238$, $p < .001$).

표 5.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81)						
변수	β	S.E	t	p	R^2	F(p)
비판적 사고성향	.420	.081	6.303	<.001	.238	29.001 (.001)
자율실습 도움정도	.194	.017	2.917	.004		

IV. 논의

실습환경의 변화와 함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면적으로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실습교육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5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측정도구는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13]된 도구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송미령 등[1]이 수정·보완한 도구로써 본 연구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측정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송미령 등[1]의 연구에서 나타난 3.63점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을 시행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된 임상수행능력 연구결과를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은 비판적 사고

성향, 자기주도적 학습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선행연구[8][10][21]와 같이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간호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는 임상수행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선행연구[8][22]와 그 맥락을 함께 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임상실습에 있어 임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환자간호결과를 학습하는 경험을 연결시키며[23], 동기부여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간호수기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매개체[30]이므로 임상실습 전 기본간호술기 교육 시부터 이를 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학습과 탐구의 교육방식을 촉진하는 문제중심학습[8]이나 사례중심학습, 팀 기반 학습 등 다양한 교수법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향[17]임을 볼 때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임상수행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난 선행연구[9][24]의 결과와는 다르게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간호대학생이 학교를 벗어나 의료기관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하며, 실습 기간 중 환자에게 간호를 수행하는 다양한 상황을 접하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해서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은 교내 실습실이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같은 술기를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익숙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이 환경의 변화나 상황의 다양성을 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자아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없게 나타났다. 탄력성은 시간에 걸쳐 발달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으로 발달과정에서 변화되고 습득되어지는 역동적 과정[25]으로 기본간호술기를 교

내에서 실습한 후 임상실습을 시행하기 때문에 교내 실습 시에 기본간호술기를 훈련하고 임상실습 시에 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임상실습을 시행하기 전부터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켜 임상수행능력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자는 기본간호술기 실습 시 모의 상황 제공 및 표준화 환자 활용 등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접하도록 유도하여 간호대학생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입학동기, 전공만족도, 실습흥미도에 따라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차이가 있었다. 즉 응답자가 적성을 고려하여 입학하고 전공에 만족하며 실습에 대한 흥미가 있을 경우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과 입학동기는 적성을 고려하여 입학한 학생이 취업률 때문에 입학한 학생보다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점수가 더 높았으나 사후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학과 입학 시 적성에 맞춰서 입학한 학생들은 학습동기,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24]를 보였으며,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1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취업률보다는 적성을 고려한 진로 선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학습과 교내실습, 임상실습 등의 훈련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과중한 전문 교육 과정에 들어간다면 전공만족도는 낮아지게 되고 이는 자퇴나 졸업 후 전공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연결됨[26]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공 만족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11], 자기주도적 학습, 문제해결 능력, 창의성, 임상수행능력[22], 자아탄력성[24]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에 만족한 학생이 임상수행능력 하위요인인 간호기술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 결과[24]와 본 연구의 결과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향후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가 되었을 때 올바른 신념과 태도 형성에 장애요인이

되어 긍정적 전문직관 형성을 방해하므로[27] 교수자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전공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실습에 대한 흥미 정도가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보다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새롭게 밝혀진 결과이며,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영향요인으로 실습 흥미도가 밝혀졌다. 선행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으로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교육환경[5]을 규명한 경우와 기본간호수행능력 영향요인으로 학습만족도[1], 실습 만족도, 실습태도[3]를 규명한 연구는 있었지만 실습 흥미도가 임상수행능력이나 기본간호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으므로 기본간호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술기 훈련으로 인해 지루해질 수 있는 기본간호학 실습시간을 선행연구에서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방법으로 입증된 웹기반 학습[29], 시뮬레이션 학습[28], 역할극[30] 등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영향요인으로 실습 흥미도가 밝혀졌으므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습 흥미도에 대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자율실습 도움정도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많은 선행연구[8][10][11]에서 규명된 바 있으며, 기본간호학 실습은 시행과 착오를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고 실습실에서 반복학습을 통해 지식의 강화를 훈련하고 간호기술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31]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자기조절적 판단을 내리는 사고를 중시하는[32] 비판적 사고성향이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교수자는 기본간호학 실습 교과목의 운영 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훈련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제공, 표준화 환자 활용, 문제중심 학습 등 다양한 방법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른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의 영향요인이 개방실습실 이용횟수[3]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율실습실 이용횟수가 아닌 자율실습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10점 만점에 점수화 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므로 선행연구와 완전히 일치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학과 인증평가항목에 자율실습을 포함시킴으로써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자율실습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으며, 설문을 시행한 학교들은 실습실을 개방하여 1주일에 2시간 이상 자율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율실습이 기본간호술기 훈련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율실습을 통해 교과목 실습시간 중에 충분히 훈련하기 어려웠던 기본간호술기를 반복훈련을 통해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실습실 개방 자율실습은 기본간호실습 교육과정에 필요하며, 자율실습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자율실습을 활성화 하는 등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전에 기본간호학 실습 교과목에서 학습하는 기본간호술기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자율실습 도움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에서 연구되지 않았던 자율실습 도움정도가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의 영향요인임을 밝힘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기본간호학 실습 교과목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 [1] 송미령, 김은만, 유수정, “간호학생의 기본간호수행능력 영향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390-401, 2012.
- [2] N. Suwan, N. Kasatpibal, and P. Sawasdisingha, “Effects of student-centered teaching on knowledge, practice, and satisfaction of clean techniques among second year nursing students,” Singapore Nursing Journal, Vol.40, No.4, pp.30-37, 2013.
- [3] 박선남, 이선경,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의 영향요인,” 기본간호학회지, 제15권, 제1호, pp.6-13, 2008.
- [4] 김미원, **핵심간호능력 중심의 간호학 실습교육목표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5] 김진현, 김성재, 방경숙, 고진강, 이남주, 유주연,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만족도와 교육요구도,” 간호학의지평, 제9권, 제2호, pp.127-135, 2012.
- [6] 엄미란, 김현숙, 김은경, 성가연,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실습교육이 피하주사 간호수행능력,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및 문제 해결 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제40권, 제2호, pp.151-160, 2010.
- [7] T. Anderson, L. Linden, M. Allen, and E. Gibbs, “New graduate RN work satisfaction after completing an interactive nurse residency,”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39, No.4, pp.165-169, 2009.
- [8] 권말숙,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87-394, 2011.
- [9] 이은경, 박진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7권, 제2호, pp.293-303, 2013.
- [10] 정승교,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조사연구,” 기본간호학

- 회지, 제18권, 제1호, pp.71-78, 2011.
- [11] 김인숙, 장윤경, 박수호, 송소현,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수행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37-345, 2011.
- [12] F. Faul, E. Erdfelder, A. Lang, and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No.2, pp.175-191, 2007.
- [13] 이원희, 김조자, 유지수, 허혜경, 김경숙, 임성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연세대학교 간호학 논문집, 제13호, pp.17-29, 1990.
- [14] 최미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교수 효율성과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15] L. M. Guglielmino,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1977.
- [16] 유귀옥, *성인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변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17] J. H. Block and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pp.39-101, Hillsdale, NJ: Erlbaum, 1980.
- [18] E. C. Klohn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5, pp.1067-1079, 1996.
- [19] 박현진,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20] 권인수, 이가연, 김경덕, 김영희, 박경민, 박현숙, 손수경, 이우숙, 장금성, 정복래,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제36권, 제6호, pp.950-958, 2006.
- [21] 조학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1권, 제2호, pp.222-231, 2005.
- [22] 박현숙, 한지영,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 기본간호학회지, 제20권, 제4호, pp.438-448, 2013.
- [23] C. Filey-Doucet, “A self-directed learning tool for nurses who percept student nurses,” Journal for Nurses Staff Development, Vol.24, No.2, E7-E14, 2008.
- [24] 박영숙, 권윤희,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문제해결과정 및 임상수행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3호, pp.341-350, 2013.
- [25] S. S. Luthar and D. Cicchetti, “The construct of resilie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and social polic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12, No.4, pp.857-885, 2000.
- [26] 고정은, 김미희, 김은진, 김혜지, 엄지은, 이행아, 장누리, 장동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일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화간호학회지, 제45호, pp.29-43, 2011.
- [27] D. Barron, E. West, and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Vol.12, pp.46-51, 2007.
- [28] 배영주, 전영미, “시뮬레이션기반 기본간호실습 프로그램 효과-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한국간호시뮬레이션 학회지, 제2권, 제1호, pp.35-44, 2014.
- [29] 남미라,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에서 웹 기반 학습의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제12권, 제3호, pp.290-297, 2005.
- [30] 김영희, 이영미, “역할극 활용 기본간호학 실습교육 평가방법에 대한 간호학생의 학습동기,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 및 문제해결 과정과의 관계,” 한국 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147-155, 2012.

[31] 유문숙, “기본간호학 실습교과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제7권, 제1호, pp.60-70, 2000.

[32] N. C. Facion, P. A. Facion, and C. A. Sanchez,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s a measure of competent clinical judgement: the development of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3, No.8, pp.345-350, 1994.

저 자 소 개

박진아(Jin-Ah Park)

정회원



- 198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학사)
- 2008년 8월 :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상전문 간호학 중환자 전공(석사)
- 201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성인간호학 전공(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중환자 간호, 혈액종양, 비판적 사고, 질적연구, 임상수행능력

홍지연(Ji-Yeon Hong)

정회원



-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학사)
- 200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석사)
- 201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박사과정 수료)
- 2009년 3월 ~ 2012년 2월 : 영진전문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감정노동, 시뮬레이션 교육, 임상수행능력